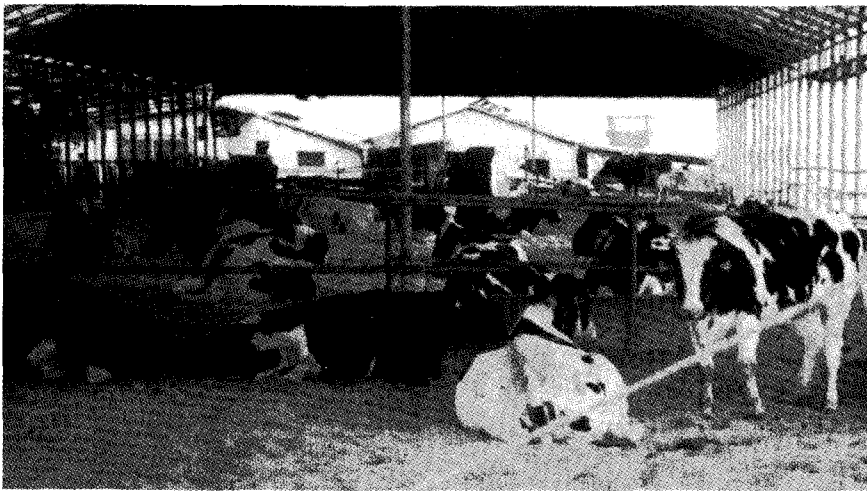




분유 체화에 따른 낙농가들의 현장 실태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기반자체가 흔들리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IMF한파로 사료값은 폭등하고 소값마저 하락하여 낙농가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기불황으로 원유 소비까지 크게 위축되어 유업체마저 경영난에 부딪쳐 원유대 체불이나 지연이 만연하여 역시 낙농가들의 생계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농산업 실태를 농가와 유업체별로 파악하고 분석해 봄으로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유업체와 유가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우유 소비가 급격히 줄기 시작해 최근에는 유제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이상 감소했다. 반면 우유 생산량은 증가하여 분유재고가 4월 20일 현재 1만5천톤으로 증가하여 적정 분유재고량을 훨씬 초과한 상태이다. 하반

기에는 분유재고량이 계속 늘어 2만톤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기도 한다.

유제품 소비급감 및 분유재고로 인한 유업체 자금난은 낙농가들로부터 집유한 원유의 대금을 한달 이상 체불하거나 농가에서 생산한 원유의 90%정도만 집유하는 등으로 낙농가에게로 직접 전가되어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강원지역에서 P유업체에 낙유하고 있는 B씨의 목소리를 직접들어 보도록 하자.

“유업체의 부도로 타유업체 보다 빠른 지난 1월부터 유대지급이 체불되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책위원회가 꾸러지고 2월부터는 유대를 1주일에 한번씩 지급하고 미지급된 1월달 1개월분의 유대는 매주마다 2일 치씩 지급하기로 유업체와 합의 하였습니다.

현재는 유업체측의 경영이 어느정도 정상화되어 1주일마다 유대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지난 1월분



업체별 분유 재고 현황 (단위: 톤)

업체명	98. 4. 10		98. 3. 31		증감량 (A-B)
	전지분유	탈지분유	계(A)	(B)	
해태유업	-	285	285	252	33
매일유업	420	2,252	2,672	2,628	44
남양유업	64	1,146	1,210	1,148	62
빙그레	15	757	772	730	42
비락	-	800	800	761	39
서주산업	-	-	-	-	-
모닝벨유업	2	36	38	42	△4
영남우유	13	41	54	52	2
삼양식품	33	132	165	169	△4
롯데해우유	131	692	823	790	33
건국우유	-	7	7	9	△2
건국유업	139	195	334	298	36
연세유업	6	282	288	268	20
삼육대학식품	3	-	3	-	3
서울우유	1,628	2,130	3,758	3,584	174
부산경남우유	150	810	960	920	40
대전충남우유	-	345	345	351	△6
광주전남우유	-	-	-	-	-
광주전남우유	-	19	19	19	-
소계	2,604	9,929	12,533	12,021	512
강원낙협	-	43	43	34	9
태백축협	-	8	8	8	-
청주우유	9	205	214	182	32
서해낙협	-	-	-	-	-
경남낙협	4	77	81	73	8
춘천축협	-	-	-	-	-
전주축협	-	-	-	-	-
소계	13	333	346	297	49
한국야쿠르트	200	1,146	1,346	1,426	△80
합계	2,817	11,408	14,225	13,744	481

의 유대는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업체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막연한 기대뿐입니다”

B씨는 얼마전 유업체 측에서 쿼터제를 실시한다고 알려 와서 소들에게 급여하는 사료량을 줄여 평균 산유량을 27kg에서 24kg으로 감소시켰다고 한다. 이로 인해 소들의 산유능력이 떨어져 10년이상 어렵게 개량을 통해 증대시켜온 평균유량이 며칠사이에 떨어져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B씨는 현재까지는 집유제한을 한다는 말이 없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하루빨리 유업체가 정상화되고 우유 소비가 회복되기를 바랄뿐이라는 인사로 취재에 답을 마쳤다.

경기도지역에서 H유업체로 납유하는 한 낙농가의 얘기다. “H유업체의 경우는 현재 유대가 1주일정도 지연 지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타유업체에 비해서 경영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상태로 우유소비만 회복되면 곧 정상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계속해서 유제품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납유하고 있는 유업체도 부득이 쿼터제를 실시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하루 빨리 소비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질개선비 지급중단으로 낙농가들 더욱 어려워

그 동안 깨끗한 원유생산을 위해 관례처럼 지급 되어 오던 유질개선비(냉각보조비)를 지난 3월 16일 유가공업계 긴급 실무자회의가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유가공업계의 결정은 유제품의 판매부진과 함께 분유재고량이 1만5천톤에 이르는 등 경영압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낙농가들도 유가공업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업체가 도산하기전에 낙농가들이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은 타지역보다 낙농가 피해가 심각한 전북 지역 L유업체에 납유하는 낙농가 얘기다.

“유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해 냉각보조비로 지급되던 kg당 11원이 3월 16일부터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낙농가들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유업체를 살리기 위해 자구책으로 농가당 매일 1리터이상 L유업체의 우유를 소비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L유업체는 농가들의 이같은 협조에도 불구하고 낙농가들과 사전 아무런 협의없이 집유량을 4월 20일부터 전년 동월대비 증가분의 2/3만 집유하고 남은 1/3에 한해서는 집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유업체에서 경영악화로 부득이 쿼터제를 실시할 경

우가 있더라도 낙농가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나 충분한 대안없이 유업체가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쿼터제를 통고해서 낙농가들은 남은 원유를 버려야 할 상황에 처해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낙농가들은 산유량을 줄이기 위해 조기에 건유시키고 능력이 떨어지는 소들은 도태시키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정상적인 착유소까지 도태시킬 수는 없는게 아니냐는 항변을 쏟아 놓는다.

낙농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료값이 인하되어 목장경영에 숨통이 트여야 할 것이다.

사료업체는 지난 11월부터 환율폭등으로 사료가격을 50% 가까이 인상하였다. 그러나 최근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됨에 따라 최근 사료업체에서 4%내외의 사료값을 인하했으나 이 정도로 낙농가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에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낙농가들이 살아야 사료업체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료값 인하에 인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낙농가들의 주문이다.

피해가 극심한 나주지역의 한 낙농가는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유대만큼은 또박 또박 지급되어 가격변동이 심한 타축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했었다고 회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타 축종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한다.

낙농가들은 대부분 현금 조달능력이 없다. 그렇다고 소나 땅을 팔 수도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요즘 사료업체에서는 낙농가들이 사료비를 제때에 갚지 못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쪼소를 차압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낙농가들은 유업체에서 유대를 못받아서 사료비를 못 줄 뿐인데 낙농가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쪼소를 차압하는 것은 낙농불황을 모두 낙농가들에게만 떠 안기는 셈이다. 낙농가들은 유업체와 사료업체 양쪽으로 부터 이중의 경영압박을 받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만약 건실한 중소기업이 외국에서 수출물량을 주문받고도 원자재 구입비가 없어 제품을 생산하지

**유업체를 살리고 낙농가들도 살길은
우유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전남지역 축협 및 낙농가들이
최근 「우유마시기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역별로
일정에 따라 우유 마시기 가두 캠페인을
벌였고 광주에서는 15~17일까지 3일째
가두 캠페인 행사를 하고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허경만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축협조합장 등 여러 인사들이 참여
하였고 수많은 시민들에게 홍보전단과 함께
2백ml 우유 3천여개를 나누어 주었다.**

못한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고급 원유를 생산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낙농가들이 소에게 먹일 사료값이 없어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실제 전남지역에서 모 유업체에 납유하고 있는 낙농가들에서 원유를 집유해 갔으나 지난 한달반 동안 3회의 유대가 지급되지 않아 소들에게 먹일 사료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다. 낙농가와 유업체, 사료업체 모두의 난국타개를 위한 공동노력이 절실요청되는 때이다.

다음은 유업체의 경영난 극복에 낙농가가 함께한 사례이다.

모 유업체의 경우는 IMF이후 소비자들이 외국제품 우유로 오인하는 바람에 소비가 타 유제품에 비해 더욱 감소돼 경영에 압박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낙농가들이 유업체의 입장을 고려해 원유값을



인상되기전인 종전가격으로 받기로 합의하는 노력을 기해 주었다. 물론 경영이 정상화되면 인상된 원유가격으로 환원시켜 소급지불한다는 조건이다.

이렇듯 유업체와 납유농가는 서로 힘을 합쳐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연이었다.

소비자들도 외국제품이 아닌 우리나라 우유임을 알고 계속 우유를 마셔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난 '97년 4월 16일 부도가 난 서주우유에 납유하던 낙농가들은 요즘 어떻게 되었나.

'94년 4월 16일 서주우유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이곳으로 납유하던 농가들이 남양유업, 비락, 연세, 파스퇴르 등으로 옮겨 각기 뿔뿔이 흩어져 납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163농가에 지급되지 못한 유대만해도 12억원 이상이 되었다고 한다.

이들 낙농가들은 서주우유가 부도난 직후 체불유대수납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유업체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도전 유대 8억원은 유업체가 제3자에 매각되기전까지는 받을 길이 없는 상태이나 부도후 유대 4억원중에서 현재 3억원을 지불받고 남은 1억원에 대해 계속적인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대부분 청주, 청원, 진천지역의 낙농가들로 앞으로도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

유업체 부도직후 정책적 농안기금과 시·군청 영세자금 등으로 대출받은 16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체불된 유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직 용자금을 못갚고 있어 현재 지불명령 독촉장이 배달되었고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거래가 중지된 상태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 오픈한 유업체에서도 납유량을 10% 감소시키라는 공문이 와 있는 상황으로 요즘은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말한다.

이들을 보면서 한 유업체가 부도남으로써 이들에게 납유하던 낙농가들도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낙농가들이 직접 우유소비 홍보에 나섰다.

유업체를 살리고 낙농가들도 살길은 우유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전남지역 축협 및 낙농가들이 최근 「우유마시기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역별로 일정에 따라 우유마시기 가두 캠페인을 벌였고 광주에서는 15~17일까지 3일째 가두 캠페인 행사를 하고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허경만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축협조합장 등 여러 인사들이 참여 하였고 수많은 시민들에게 홍보전단과 함께 2백ml 우유 3천여개를 나누어 주었다.

IMF한파로 인한 우유소비의 급격한 감소와 분유재

고가 날로 체화되어 낙농산업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때에 우유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타지역에서도 우유 소비촉진행사가 계속 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지금껏 농가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낙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 전라남도과 광주전남지역 축협은 우유마시기 기두캠페인을 실시, 우유시음 및 홍보전단등을 배포하며 우유의 우수성을 알렸다.

함께 느낄 수 있었다. 현재 겪고있는 어려운 상황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돌연한 IMF사태와 유비무한 정신으로 미리부터 대비하지 못한 탓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도 늦은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위기극복을 위해 모두가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낙농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낙농가들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이 따라야 한다. 원유생산량을 감량하기 위해서 저능력우는 과감히 도태해야 한다. 정부도 도태장려금 지급과 함께 육우를 수매하여 도태를 촉진시켜야 한다.

둘째 유업체와 낙농가들이 힘을 모아 우유홍보에 앞장서야 한다.

우유소비가 감소하여 분유가 체화되면 당연히 유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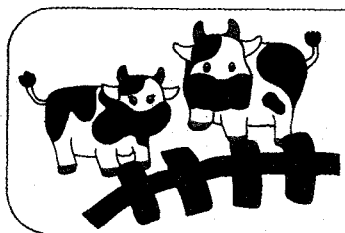
체는 경영난을 겪게되고 이것은 낙농가에게로 이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유업체뿐만 아니라 낙농가들도 함께 우유홍보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 낙농가들의 경영난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료값이 하향 안정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사료비 부담이 큰 상태로는 살아남을 낙농가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사료업체의 노력이 필요하고 낙농가들은 자급 조사료생산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낙농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낙농가, 유업체, 사료회사, 정부 등 모든 분야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비로서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낙농을 할 수 있는 선진낙농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으리라고 본다. ☺

(취재 : 박동신)



우유를 마시자